



"서울 놈의 글 꼭질 모른다고 말꼭지야 모르랴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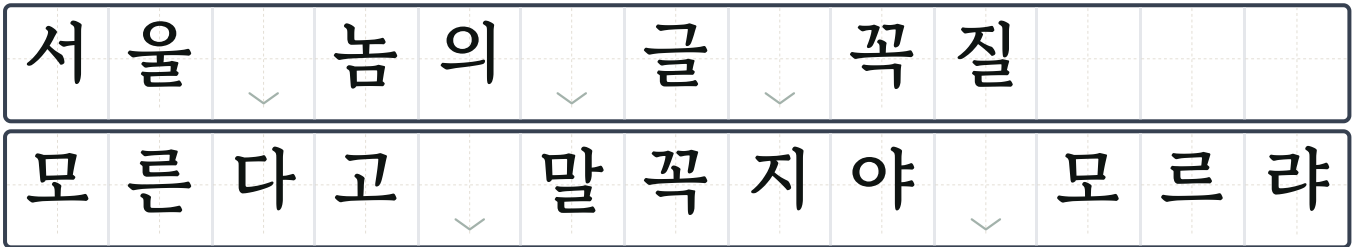
뜻: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해서, 말의 중요한 핵심 내용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. 즉, 어떤 한 가지를 못한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무시 · 편견 · 지혜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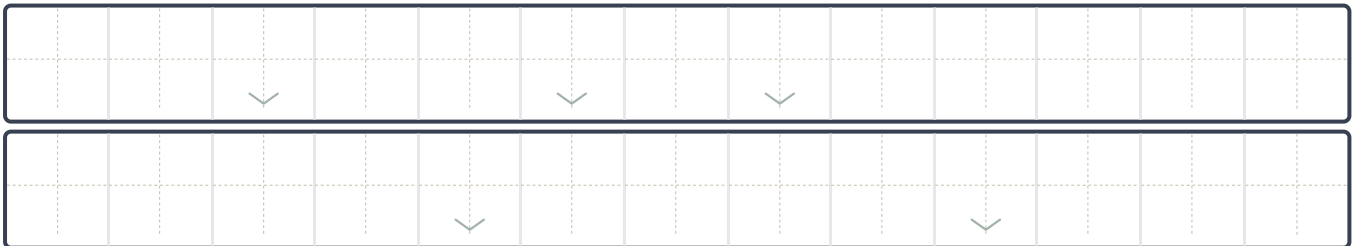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ㅅㅇ][ㄴㅇ][ㄱ][ㅈㅈ][ㄹㄹㄱ][ㄹㅈㅈㅇ][ㄹㄹㄹ]

웹에서 보기

